

평창 선언

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조운선 장관, 중화인민공화국 체육총국 류 평 국장, 일본국 문부과학성 마쓰노 히로카즈 대신은 2016년 9월 23일 제1회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를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하였다.

우리는 《평창선언문》을 통해 한·중·일 스포츠 교류와 협력이 상대국민에 대한 이해의 확대에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, 동시에 3국의 미래지향적인 교류협력을 정착해 나가기로 한다.

1. 한·중·일 3국은 국가 간 스포츠 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 및 신뢰 촉진을 강화하고, 이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공존을 위해 노력한다.
2. 3국은 2018평창동계올림픽·패럴림픽, 2020도쿄올림픽·패럴림픽, 2022베이징동계올림픽·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하우 공유 및 공동 붐 조성 등을 추진한다.
3. 여성, 청소년, 장애인,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활성화 통해 3국 간 교류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, 스포츠를 통한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.

4. 3국은 스포츠산업이 아시아지역발전의 지속적인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한다.
5. 3국은 도핑방지를 위한 협력 활동을 통해 선수 보호에 앞장서고, 전 세계에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확산시킨다.
6.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를 정례화한다. 제2회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는 2018년에 일본에서 개최한다.

2016년 9월 23일 한국 평창에서 통과됨.

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

일본 문부과학성 대신

중화인민공화국 체육총국 국장